영어어문교육 창간호 1995

영어 청해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지도 방안

박 찬 식
(예산공고)

Park, Chan-Shik. (1995). A study of an effective teaching of listening comprehens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 69~108

Listening comprehension can be defined as a process of an integrative, positive and creative activity through which listeners get the message of speakers' production using linguistic or non-linguistic redundancy as well as linguistic or non-linguistic knowledge. Compared with reading comprehension, it has many difficulties especially for foreigners, while it can be transferred to the other skills: speaking, reading, writing. With this said, listening comprehension can be taught effectively using the following teaching strategies.

First, systematic and intensive instruction of segmental phonemes, suprasegmental phonemes and sound changes must be given to remove the difficulties of listening comprehension concerned with the identification of sounds.

Second, vocabulary drill through various games and other activities is absolutely needed until words can be unconsciously recognized. Without this, comprehension is almost impossible.

Third, instruction of sentence structures is thought to be essential considering grammar is supplementary to listening comprehens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for academic purpose. So grammar translation drills, mechanical drills, meaningful drills and communicative drills should be performed in succession with common or frequently used structures.

Fourth, listening activities for overall comprehension should teach how to receive overall meaning of intended messages intact. Linguists and literatures have listed some specific activities as follows: Total Physical Response, dictation, role playing, singing songs, selective listening, picture recognition, list activities, completion, prediction, true or false choice, multiple choice, seeking of specific information, summarizing, problem-solving and decision-making, recogniz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speakers, recognition of mood, attitude and behavior of speakers,

labelling, humor, jokes, cartoons, TV and news media etc.

Most importantly, the overall teaching plan should also contain constant efforts to put students at ease and make learning enjoyable, so that students can join the activities in an easy, interested and open-minded way.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언어란 자의적인 음성기호를 이용한 의사 소통 체계(Finocchiaro, 1964:8, Pei, 1966:141, Wardhaugh, 1972:3) 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언어의 목적은 의사 소통에 있다고 하겠다. 의사 소통은 이해력(듣기, 읽기)과 발표력(말하기, 쓰기)을 모두 포함하나 발표력보다 이해력이 우선해야 하며, 특히 듣기가 언어의 네 기능 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주장이다(Brown:1978). Krashen and Terrell(1983)은 그의 투입 가설(input hypothesis) 중에서 말하기를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은 듣기 훈련이며, 말하기의 유창성은 후에 저절로 나타난다고 한다. Postovsky(1974)는 초보 단계에서 집중적인 구두 훈련은 비효율적이며, 구두의 이해력이 획득되기까지 발화가 지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sher(1969)도 학습의 초기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동시에 시켰을 때 말하기가 청해력 습득에 오히려 장애가 되며, 청해력이 말하기에 전이 효과가 있음도 입증했다. Rivers(1981)는 청취 훈련이 잘 되면 말도 저절로 할 수 있고 읽기나 쓰기의 기능으로 쉽게 전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듣기와 말하기가 중요시됨에 따라 교수법도 처음에는 주로 독해능력을 기르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 외국어로만 듣고 말하는 직접식 교수법으로, 60년대와 50년대에 걸쳐서 기계적 문형연습에 의한 듣기 말하기에 중점을 둔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s)으로 변천을 겪게 되었다. 그 후 Paulston & Bruder는 유의적 연습(meaningful drill), 의사 전달 연습(communicative drill) 및 여러 가지 의사 소통 활동을 통하여 교실 수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청화식 교수법의 기계적 연습의 단점을 보완하여 청해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시사해 준다.

한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국제 교류를 위해서 외국어 특히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교육의 목표를 과거의 정확성(accuracy) 위주의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 배양에서 유창성(fluency)과 실용성(authenticity)에 바탕을 둔 의사 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배양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은 실용적 목적과 학문적 목적을 모두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청해력 중심의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말하기, 읽기, 쓰기 가능에 대한 지도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한편, 듣기의 전이효과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화식 교수법의 기계적 연습을 지양하고 절충식 교수법(Eclective Method)의 유의적 듣기(meaningful listening)를 통하여, 청해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말하기, 읽기, 쓰기에 바람직한 효과를 미치도록 하는 한편, 정의적 관점에서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학습 상황과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운영하여 항상 영어 학습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청해력 중심의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해의 의의 및 중요성

청해는 단지 말소리의 환경에 처하는 이상의 활동으로, 구어에 주의를 기울여 해석하는 과정이다. 말소리를 듣고, 소리의 흐름을 구분하고, 그 소리를 어휘적 통사적 단위로 나누어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Bowen et al, 1985: 74). Chastain(1976)도 유사한 입장에서 청해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로서 소리의 식별(discrimination of sound), 청각 인상의 보존(retention of auditory), 종합적 이해(overall comprehension)의 세가지를 든다. Burns (1971:82)는 hearing과 listening을 구별하여, hearing이 listening의 기초가 되지만 listening은 반응, 식별, 사고를 통해서 hearing을 확장해 간다고 한다. 박정자(1984)도 단순히 소리만을 듣는 hearing과 이해를 전제로 한 듣기(listening comprehension)와는 다르다고 하고, 소리로부터 얻어진 언어 정보, 문맥에 따른 상황 판단 및 화자의 의도가 청해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Rivers(1968:136-138)에 따르면, 외국어 음의 학습은 충분한 경험을 통하여 예상되는 틀(frame)이 형성되기까지 오랜 연습과 숙달이 필요하며, 상당한 양의 잉여를 통해서 인간은 보통 말하는 속도의 언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이러한 잉여 외에도 몸짓, 얼굴 표정, 호흡이나 휴지의 길이, 강조의 정도 등 키네식스(kinesics) 또는 부언어(paralanguage)도 의미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Paulston & Bruder(1976:128)도 청해는 추측하고, 어림잡고, 기대하고, 보통의 구어적 상황에서 비언어적 잉여뿐만 아니라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모든 언어적 잉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이상적 판단을 내리는 적극

적 상호작용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청해는 매우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언어 기능으로서, 말의 속도, 발음과 억양의 명료성, 주저, 휴지와 같은 구어 특유의 언어 수행적 요소는 물론 음운적, 어휘적, 문법적, 이념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청해시 학습자의 불안의 원인은 구어가 화자에 의해서 통제되므로 읽기에서처럼 학습자가 투입 언어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Snow & Perkins,1979:51). Rivers(1981)가 주장한 바와 같이, 청해는 전통적으로 믿었던 것처럼 수동적 기능이 아니라, 창조적 능동적 기능이다. 우리의 귀에 들려 오는 소리를 청자가 받아들여 의미를 창조하게 되는데, 이 때 세 가지 요소에 의존하게 된다. 첫째, 언어 정보로서, 청자가 소리, 단어, 발화의 배열 같은 음성적 신호에서 얻는다. 둘째, 상황적 맥락으로서, 이미 습득한 정보와 현재 말해진 것과, 앞으로 일어날 기대간의 관련성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화자의 의도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종합해 보면, 청해란 화자의 발화에 기초해서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인 언어적 지식과 청자의 배경 지식이나 상황 맥락 같은 비언어적 지식 및 언어적 비언어적 잉여를 동원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적극적, 통합적, 창조적 상호작용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해의 과정

Rivers(1981:168-172)에 의하면, 청취 활동이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첫째, 식별의 단계로, 외국어의 발화를 듣고 음성의 상승조, 하강조, 호흡군, 음의 패턴, 통사상 패턴을 구별하기 시작하나 아직 이해의 단계에는 미치지 못한다. 둘째, 보전 없는 식별과 선택의 단계로, 음성의 연속에서 낯익은 요소를 식별할 수 있으나 아직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이해의 단계이다. 셋째, 단기 보전을 수반한 식별과 지시부 선택의 단계로, 정보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의미 파악에 무관한 항목은 기억 체계에 부담을 주므로 여과를 거쳐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항목만이 즉시 기억 (immediate memory)에 저장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순환되지 않는 항목은 단기 기억에서 사라진다. 넷째, 장기 보전을 수반한 식별과 선택의 단계로, 지각 체계는 정보 흡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즉시 기억에 보전하여 재 순환할 수 없는 것은 상실하고 선택된 항목만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다. Rivers와 유사한 입장에서 Underwood(1993:2)도 청해 과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한다. 첫째, 소리가 메아리 기억(ecohic memory)에 들어가서 이미 습득한 언어 지식에 따라 유의적 단위로 조직되고, 둘째, 단기 기억에 의한 정보처리의 단계로, 귀에 들리는 단어나 단어 군을 단 몇 초간에 장기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된 정보와 대조, 비교하여 의미를 추

출한다. 일단 의미가 파악되면 실제 사용된 단어들은 대개 잊혀진다. 이 때 처리 속도가 중요시된다. 그 이전의 정보 덩어리 (chunks)가 처리되기 전에 새로운 정보 덩어리가 단기 기억 속에 밀려오면 기억 체계의 과중한 부담으로 의미 파악에 혼란을 초래한다. 학습자가 듣기에 익숙해지고 언어를 더 많이 습득함에 따라 자주 듣는 정보 덩어리를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낯선 투입을 처리할 여지를 남긴다. 셋째, 학습자가 일단 발화에서 의미를 파악하면 나중에 사용할 정보를 장기 기억 속에 축소된 형태로 저장하여 다시 꺼내 쓸 때는 사용된 언어는 잊혀지고 요지만 기억된다. Peterson(1991:110)에 의하면, 정보처리가 기억 체계 내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메시지의 이해는 메시지의 내면적 생산 과정으로 말소리가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감각 기관을 거쳐 단기 기억(short term memory) 속에 저장되는데, 단기 기억 용량의 한계 때문에 일정한 양의 정보만이 저장되고, 이 단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는 통사적 요소로 분석되고 의미 단위로 해석되어 장기 기억(long term memory)속에 들어 있던 다른 명제들과 관련을 맺고 더 이상 유입되는 정보가 없으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Peterson(1991,108-109)에 따르면, 청해는 하향식 과정(top-down) 혹은 상향식 과정(bottom-up)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향식 과정은 내부적 정보 요인 즉 선험적 지식, 언어에 대한 기대와 세계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 일반적 기대에서 언어 정보가 처리된다. 학습자는 문맥에 기초를 두고서 유입되는 정보에 대해 예측하고 전체의 의미에 부합되게 이해한다. 사실과 명제, 기대와 같은 계층에 기초한 예측과 추론이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 지식에는 내용적 틀(content schemata)과 형식적 틀(formal schemata)이 있는데, 전자는 문화적 지식, 화제의 친밀성, 현장과 관련한 선험적 지식 등이며, 후자는 수사적 전통 및 통사 구조와 관련한 담화 형식에 대한 지식이다. 상향식 과정은 유입되는 언어 자료 그 자체 즉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언어 정보가 처리된다. 소리, 단어, 문법 관련성 및 어휘 의미를 통해서 정보의 의미가 해석된다. 이 두 가지는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한편의 부족을 다른 편으로 보충할 수 있다. 하위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된 학습 활동에서는 모니터를 사용한 상향식 과정이, 상위의 수준에서는 모니터를 적게 사용하고 배경 지식을 사용한 하향식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3. 청해를 우선하는 교수법

청해를 우선하는 교수법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듣기 훈련을 시키고 듣기 능력이 어느 정도 길러진 후에 말하기 훈련을 시켜야 듣기 자체는 물론 여타의 언어 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다.

A. 전신반응법(Total Physical Response)

Asher(1977)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을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과 유사한 과정으로 본다. 어린이는 처음에 명령에 대해 신체적 반응을 보이다가 구두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인도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모국어 습득 과정을 따라서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전신반응법은 자취를 남길수록 기억 연상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심리학의 흔적이론(trace theory)과 게임과 같은 활동적 학습은 학습자의 긴장을 해소시켜 편안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인본주의 학습 이론에 기저를 두고 있다. 그는 학습자가 말하기를 배우기 전에 이해력을 먼저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몇 가지 교수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언어 학습에서 이해력이 말하기 능력에 우선한다. 둘째, 말하기는 이해력이 습득될 때까지 지연되어야 한다. 셋째, 청취력은 다른 언어 능력에 전이된다. 넷째, 형태(form)보다 의미(meaning)를 강조하여 교수해야 한다. 다섯째, 교수는 학습자의 긴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신반응법의 교수 목표는 구두 능력에 있다. 이해력은 하나의 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말하기 능력을 길러 거리낌없이 의사 전달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태보다는 의미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문법은 귀납적으로 가르쳐지고 문법 자질과 어휘 항목은 목표어 상황에서의 사용 빈도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우기 쉽고 교실에서 사용 가능한가에 따라 선택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학습 초기에 주어 없는 명령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발화를 강요하지 않고 긴장을 해소시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행동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인 명령문 이외의 문장 즉, 의문문, 감탄문, 평서문, 기원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Asher 자신의 주장처럼 다른 방법과 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B. Postovsky의 청해 우선 교수법

Postovsky(1974,1975)는 외국어 습득도 모국어 습득과 마찬가지로 청취력(auditory receptive ability)이 구두 표현 능력을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어를 말로 표현하는 단계에서는 음운적, 어휘적, 형태적, 통사적 모든 요소가 학습자의 기억 속에 비축되어 표현되어야 하는데, 외국어 학습 초기에 이와 같은 표현을 요구하는 것은 기억도 되기 전에 표현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청취 단계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귀로 들은 외국어를 기억하지 않고 즉각적인 인지로 끝내야 한다고 하며, 이와 같은 인지가 계속 반복됨에 따라 점차 기억에 남게 되고 언어의 종합적인 구도가 내재화되고 나면 자동적인 구두 반응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어에 대한 청취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외국어 학습에 있어 구두 연습을 늦추고 먼저 청취와 쓰기만 시킨다면 네 기능을 개발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②청취한 말을 문자로 쓰게 하는 연습은 말하기로의 추이를 용이하게 만든다.

③동일한 구두 입력을 가지고 쓰기 연습을 시키는 편이 문법 구조를 훨씬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한다.
④발음 연습에 앞서 정서법의 제시는 발음을 먼저 연습시키고 문자를 뒤에 제시할 때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시킨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이 청취력의 양성이 구두 표현력 양성의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할 것 이라는 가설을 증명해 주며, 구두 연습을 늦춤으로서 언어 능력이 더욱 강화되어 발음과 문법을 더 정확하게 다룰 수 있고 모국어로부터의 간섭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이계순:1985)

C.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

Krashen(1983:26-39)은 외국어 습득에 관한 실험적 연구 결과, 다음 다섯 가지 가설을 내세운다.

첫째, 습득-학습 가설(acquisition-learning hypothesis)로, 외국어 능력을 개발하는데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습득(acquisition)과 학습(learning)으로 구분하였다. 습득은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유사하게 자연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학습은 언어에 대한 지식 즉, 명시적 언어 규칙을 의식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으로 본다.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습득이 중요시된다. 둘째, 자연적 순서 가설(natural order hypothesis)로, 문법 구조는 예견된 자연적 순서에 따라 습득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연구를 통하여 언어 형태소의 습득 순서가 유사한 것을 입증한 바 있다.(Brown: 1973, Dulay & Burt:1974) 셋째, 모니터 가설(monitor hypothesis)로, 의식적 학습은 모니터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발화는 습득된 지식 체계에 의해 시작되고 후에 모니터를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넷째, 투입 가설(input hypothesis)로, 현재 습득한 언어 능력 수준을 상회하는 투입(i+1)을 이해함으로써 언어가 습득되고 발화의 유창성은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섯째, 정의적 여과 가설(affective filter hypothesis)로, 외국어 습득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의적 변인(affective variables)으로 동기(motivation), 자기 심상(self-images), 불안감(anxiety)등이 작용한다고 보고, 이들 변인들을 제거 내지 감소시켜 흥미롭고 편안한 심리 상태를 조성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가설에 기초로 해서 다음 다섯 가지 교수 지침을 제시했다.

① The goal of the Natural Approach is communicative skills.
② Comprehension precedes production.
③ Production emerges.
④ Acquisition activities are central.
⑤ Lower the affective fil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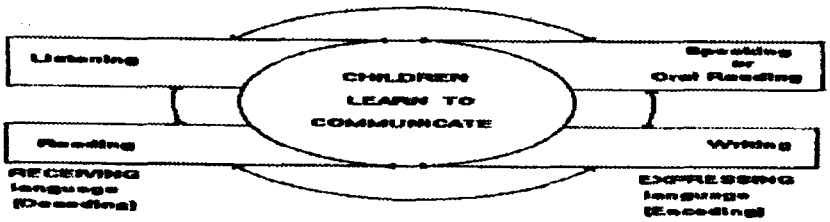
결국 의사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습보다 습득 활동을, 문법 지식보다 의사 교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교사는 목표어로 풍부한 투입을 주되,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성인의 외국어 습득 과정이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과 유사한 과정을 겪는다고 본다. 말하기보다 듣기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하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각각 특색을 지닌다. Asher는 명령을 듣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청취력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의 전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신반응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Postovsky(1974,1975)는 듣고 말로 반응하는 대신 쓰기를 시킴으로 발음의 정확성과 문법의 정확성까지도 익혀 유창한 구두 표현으로 옮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듣기에서 받아쓰기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Krashen(1983:32)은 학습보다 습득을 중요시하여 의사 소통 목적을 위한 습득된 언어 수준보다 상위의 투입이 이루어지되 다양하고 풍부한 투입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어 학습에서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4. 청해력이 다른 언어 기능에 미치는 영향

Anderson & Lynch(1991:15-17)에 따르면, 제 2언어 학습자가 숙련된 대화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청자와 화자로서의 두 역할을 능숙하게 해낼 필요가 있다. 청자로서의 체험이 말하는 연습보다 중요하다. 많은 모국어 화자들이 표현 이전에 듣기 연습이 없이는 청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표현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듣기와 말하기 기능은 읽기 지도가 시작되기 전인 취학 전에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그래서 어린이는 이미 효과적 청자이므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여 듣기 기능 발달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Neville(1985)은 읽기와 청해에 대한 Cloze Test를 실시한 바, 8세, 11세, 13세의 아동들에게서 양자의 점수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훌륭한 청자가 대개는 훌륭한 독자이고, 빈약한 청자가 보통은 빈약한 독자가 됨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또한 최고 한도 효과(ceiling effect)를 적용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청해는 초기에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발전을 계속하는 기능이라고 본다. 청해 기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청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읽기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Wundsteen(1971:13)과 Gary & Gary(1981)도 청해력이 다른 언어 능력, 즉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차경환:1991).



〈 표 〉 Listening Compared to Other Language Arts

많은 EFL/ESL 전문가들은 청해력이 다른 언어 능력에 많은 전이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다(Asher, 1974, 1981, 1986; Lundsteen, 1971; Postovsky, 1974, 1981; Cunningham, 1975; Benson & Hjelt, 1978; Gary & Gary, 1981; Parreren, 1983; James, 1984). Lundsteen (1971:3)은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귀머거리가 되면 5년 내에 말하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Parreren(1983:251)은 외국어 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통사, 발화, 억양, 어휘, 관용적 표현 등 발화 요소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이에 듣기가 말하기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읽기와 듣기는 수용적인 언어 능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Horn(1942:377-413)은 두 능력의 상관계수가 +0.70~+0.75 로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두 수용적인 능력은 심리학적으로 유사하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한다. 그 밖에 Sticht(1972), Winitz, Reeds & Garcia(1977), Fahmy(1979) 등도 청취력을 높이는 학습이 읽기에 높은 전이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Asher, Kusudo, Torre(1974)는 서반아어 교육에서 청취력이 쓰기에 미치는 높은 전이 효과를 알아냈다(Glisan, 1986:421). (차경환,1991:51-53)

이상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서 본 바와 같이, 언어의 네 기능 중에서 이해 기능인 듣기, 말하기가 먼저 길러지고, 표현 기능인 읽기, 쓰기가 나중에 길러진다. 이해 기능 중에서도 듣기가 말하기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청해가 다른 언어 기능 즉 말하기, 읽기, 쓰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전이 효과를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모두 독자적인 언어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기능 상호간의 영향성도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Ⅱ. 청해력 지도 방안

1.청해의 문제점

Underwood(1993:16-19)는 개인적, 문화적, 교육적, 언어적 전통 및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언어를 들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듣기 자료 및 듣기 활동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유념해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음 점을 지적한다.

① 청자가 화자의 말의 속도를 통제할 수 없다.
② 교실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는 청자가 이해하지 못한 발화를 반복시킬 수 없다.
③ 어휘 선택이 화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청자의 한정된 어휘가 청취에 장애가 된다.

④ 발화 중에 사용되는 언어의 신호를 인식한지 못할 때 청취 장애가 발생한다.
⑤ 문화적 차이 및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의 차이에서 오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⑥ 집중력을 기울일 수 없을 때 의미의 흐름에 단절을 가져온다.
⑦ 그릇된 학습 습관이 청해를 방해한다.

김성억(1989:4)에 의하면, 청해의 문제를 과정 외적인 요인과 과정 내적인 요인으로 분류한다. 과정 외적인 요인으로서 청자 자신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와 청자가 처한 물리적 주변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과정 내적 요인으로 7단계를 들고 있다. 즉 ① 말소리 흐름 자체의 음향적 청감이 나쁘거나 주변의 소음이 있을 때 ② 정신적 집중력 및 주의가 산만한 경우 ③ 말소리의 흐름을 개별 단어의 단위로 끊어서 인식할 때 학습자의 축적된 청각 영상과 원어민의 발음에서 받는 청각영상이 차이가 있을 때, 음운론적 지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④ 파악된 개별 단어를 묶어서 sense group으로 형성하는 단계에서 구문론적 지식이 빈약한 경우 ⑤ sense group으로 인식된 내용을 절과 문장 수준으로 확장하는 단계에서 문법적인 지식이 결핍되어 있거나 청각적 인식에 실패했을 때 ⑥ 언어학적 지식과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화자의 의도를 도출할 때 지식의 종합적 적용의 실패 ⑦ 장기 기억을 위해서 명제를 재구성하는 데 실패했을 때 등이다.

서초순(1988:69)은 청해의 가장 난점은 불명료한 소리의 흐름 속에서 화자의 메시지를 알아내는 일이라고 한다. 약음, 단축, 생략, 변음, 동화 작용 등이 난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통사적 측면으로서, 일상 대화에서는 문법에 맞지 않는 대화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다. 영어는 강세 박자어로 구어체의 리듬 현상 때문에 무강세 음절은 강세 음절에 흡수되어 알아듣기 어려워진다. 끝으로 심리적 측면으로 청취할 문장이나 문단이 길어짐에 따라 주요 메시지만 추출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취의 장애가 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① 청자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와 물리적 주변 환경
② 음운론적 음성학적 식별력
③ 발화의 속도에 대한 통제력
④ 어휘가 부족한 경우
⑤ 주의 집중이 산만한 경우
⑥ sense group 으로 인식하는 능력
⑦ 통사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⑧ 문화적 차이 및 배경 지식의 결여
⑨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건너뛰는 능력
⑩ 추론하고 종합하는 능력

2. 청해 지도의 원리 및 유의점

다음은 Morley(1971)의 청해 지도의 원리이다(Paulston and Bruder, 1976: 129).

① 청해 교수는 주의 깊게 진술한 명백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적합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그 목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② 청해 교수는 단계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짜여져야 한다. 청해 과제는 학생들의 언어숙달 정도에 따라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해 가야하며, 학생은 과제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알고,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청취해야 하는가를 지시받아야 한다.

③ 청해 학습은 능동적이고 스스럼없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청해 자료에 대해 글로 써서 응답하는 것과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발화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야 한다.

④ 청해 교수는 집중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의사 소통시 기억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이러한 절박감은 집중력과 함께 기억의 주요한 요소로서 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업 그 자체에서 나온다. 학생들에게 듣기 자료를 들려주기 전에 쓰기 숙제를 부여한다.

⑤ 청해 수업은 의식적 기억 작용을 강조해야 한다. 듣기의 목적은 학생들의 기억 기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즉시 회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듣기는 수용하는 것이며, 수용은 사고를 요하고, 사고는 기억을 요하므로, 듣기, 사고, 기억은 분리할 수 없다.

⑥ 청해 수업에서는 테스트하지 말고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의 대답을 점검하는 목적은 피드백으로서 학생들의 성취와 발전 정도를 알게 하는 데 있다. 수정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맛보게 해서는 안된다.

3. 정의적 측면에서의 청해 학습

외국어 학습에서 태도, 동기 등 정의적 여과를 낮추는 일이 외국어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Gardner와 Lambert(1959)의 외국어 학습자의 태도와 동기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학습자의 긍정적인 학습 태도가 외국어 습득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Spolsky, 1969). 둘째, 학습자의 목표어에 대한 신념은 외국어 습득에 큰 효과를 줄 것이다. 셋째, 학습자의 자기 확신과 바람직한 자기 심상이 외국어 습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불안, 공포, 근심을 없애고, 안심, 편안한 상태에서 학습에 임하면 외국어 습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째, 외국어 학습자가 자신을 모국어 화자처럼 이상적으로 생각지 않고 현실적으로 외국어 학습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외국어를 말한다면 더욱 자연스런 외국어 화자가 될 것이다. 여섯째,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어에 대한 충격이나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면 학습에 지장을 줄 것이다(Schumann,1987). 일곱째, 외국어 학습자의 외향적인 성격은 외국어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고, 내향적인 성격은 지장을 줄 것이라는 결론을 얻고 있다.

Brown(1987:100-104)은 인간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믿고,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외국어 습득의 매우 중요한 일면이라고 말하고,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인격 인자로, 자아 존중(self-esteem), 억압(inhibition), 모험(risk-taking), 동기(motivation)등을 예로 들고, 학습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교수 학습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의사 소통 과정의 극히 중요한 측면 즉 제2문화 학습,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및 부정적 태도 등도 외국어 학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위의 여러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태도나 동기, 욕구 같은 심리적 요인 즉 불안감,경쟁심, 내향성, 억압, 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을 제거함으로서, 청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자료를 늘 변화있게 제공하고, 교사가 적절한 보상을 주되 내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오류 수정을 최소화하며, 집단 활동, 조별 활동을 통하여 편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 활동이 전개되도록 교사는 치밀한 학습 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 청해의 지도 방법

A. 음의 식별 지도

Rivers(1968:136-137)에 의하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소리는 언어마다 구별되는 음성적 패턴을 갖고 있어서 특정 언어에 대한 가능한 소리의 연속을 제한하고 소리의 발생 빈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소리의 크기, 높이, 휴지의 길이와도 관계가 있다. 어린이는 모국어를 학습함에 따라 어떤 소리의 형태는 기억하고, 다른 소리의 형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외국어의 연속된 소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음에 따라 기대의 틀을 형성하여 의미의 단서가 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인식하게 된다.

Bowen et al(1985:73-74)은 청해를 단지 말소리가 들리는 상황에 있는 이상의 것으로, 구어에 주의를 기울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어를 듣고, 소리의 흐름을 나누고, 그 소리들을 어휘적 통사적 단위로 묶어서,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해는 말소리를 음성적으로 식별해 내고 그 소리의 연속체를 chunking한 다음, 여러 복합적인 언어 내적 외적 요인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모국어 화자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생득적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지

모르나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청해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분절음소(자음,모음), 초분절음소(강세,억양,리듬) 및 인접한 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변음 현상(동화,이화,약화,탈락,첨가,연음 등) 등을 조직적 집중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1). 분절음소

Lado(1957:13-17)는 모국어와 목표어 간에 음소적 차이가 외국어의 음소 식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모국어에 없는 음소,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음성적 차이,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조음점 조음위치의 차이, 모국어에 없는 특정음 등을 든다.

Fraida(1977:85) 및 Kenneth(1976:290)가 주장한 바와 같이 동일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음 때문에 뜻의 차이가 생기는 단어의 짝인 최소대립어(minimal pairs) 연습으로 음소의 미묘한 차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①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조음점, 조음 방법, 유·무성음의 차이를 설명한다.
② 먼저 어떤 음소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난(column)의 음들을 들려주고 따라 하게 한 다음, 그와 대립되는 음소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난의 음들을 들려주고 따라 하게 한 후 마지막으로 대립 쌍이 되는 음들을 듣고 따라 하게 한다.
③ 최소대립어 중의 하나를 들려주고 해당하는 음을 체크하게 한다.
④ 연습한 음을 dialogues, games, puzzles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히게 한다.
⑤ 최소대립어가 들어 있는 문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시킨다.

가) 자음

/r/ 과 /l/

/r/은 유성 치경 전이음으로 혀끝을 연구개 쪽으로 말아 올려 입천장에 닿지 않게 입모양을 둥글게 하여 발음한다. 같은 전이음인 /w/와 연습시키면 효과적이다.

/l/은 설측음으로 clear /l/과 dark /l/로 구분되며, clear /l/은 다음에 자음이 오거나 어미에 오는 경우로서 혀끝이 윗니의 잇몸에 가볍게 닿거나 닿으려는 순간에 발음한다. 혀의 뒷 부분이 clear /l/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길게 늘린 발음이 된다.

〈 예 〉	column Ⅰ	column Ⅱ
	light	right
	long	wrong
	glass	grass

이와 같이 최소대립쌍들 /b/와 /v/, /f/ 와 /v/, /s/와 /θ/,

/ʒ/와 /dʒ/ /θ/와 /ð/, /d/와 /ð/등을 같은 요령으로 익히게 한다.

나) 모음

/i:/와 /i/

/i:/는 혀끝을 들어 올려 입술을 옆으로 퍼지게 하여 윗니가 드러나 보이도록 발음한다. 즉 high, front, tense 상태의 발음이다. 우리말의 /이/와 흡사하다.

/i/는 /i:/보다 혀의 위치가 조금 낮아지고 이완되며 좀더 짧은 음이다. 입을 조금 벌리고 근육과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입술을 옆으로 퍼지게 하여 힘을 빼고 발음한다. 우리말의 /에/에 가깝다. high, front, lax 상태의 발음이다.

〈 예 〉	column I	column II
	eat	it
	beat	bit
	teen	tin

같은 요령으로 최소대립쌍들 /i/와 /e/, /e/와 /æ/, /æ/와 /ʌ/, /u:/와/u/등을 익히게 한다.

(2). 초분절음소

우리가 외국어 화자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자음, 모음과 같은 개별적 음소의 식별뿐만 아니라 강세(stress), 억양(intonation), 연접(juncture), 리듬(rhythm)과 같은 초분절음소에 대한 식별 훈련도 필요하다.

가) 강세

강세란 어떤 음절을 주위의 음절보다 더 강하게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에서는 강세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외국인과 대화할 때에는 강세를 달리하여 발음하면 의사 소통이 잘 않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학생들이 영어를 강세 없이 우리말 읽듯이 읽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철저한 강세 훈련으로 영어다운 영어를 말하도록 해야겠다. 강세는 단어 강세, 복합어 강세, 문장 강세가 있다.

(a) 단어 강세

강세는 보통 강한 정도에 따라 제1강세, 제2강세, 제3강세로 분류된다. 강세의 위치에 의해서 품사가 변하기도 하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 단어를 익힐 때 강세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면서 듣고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 예 〉 *insúlt*(동), *ínsult*(명), *óbject*(목적), *objéct*(반대하다)

(b) 복합어 강세

두 단어 이상이 모여 한 단어 역할을 하는 것을 복합어라 하고 크게 복합 명사, 복합 형용사, 복합 동사로 나눌 수 있다. 강세의 위치에 따라 뜻의 차이를 가져오니 유의해서 지도해야 한다. 강세를 달리하여 들려주고 뜻의 차이를 말하도록 하거나 우리말 뜻을 말하고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 예 〉 *greén hoùse*(온실), *greèn hoúse*(녹색집), *snów -whìte, bàck úp*

(c) 문장 강세

문장은 발음할 때에 문장의 단어 하나 하나를 모두 강세를 주어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일부 내용어만을 강하게 발음하고 나머지 기능어는 약화된다. 그러나 대조적인 의미나 특별히 강조할 때, 특히 시어에서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강조할 때는 이들 기능어에도 강세를 줄 수 있다. 이는 영어가 강세 박자어이기 때문이다.

〈 예 〉 *Tóm ìs rûnning. Tòm ís rûnning. Tòm îs rúnning.*

나) 억양

억양은 소리의 높이(pitch)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 문장 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상 소리의 높이는 무수히 나눌 수 있으나 전통적인 영어음 분석에 있어서는 소리의 높이를 저음(low), 중간음(normal), 고음(high) 의 셋으로 나누며, 특히 격앙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고음(extra high)을 인정하여 이들을 각각 저음부터 1, 2, 3, 4로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 2, 3만 쓰인다. 기본적인 억양 유형으로 231형(rising-falling intonation), 233형(rising intonation), 232형(non-final intonation)이 있다. 흔히 학생들이 영어를 발음할 때 우리말 식으로 억양 없이 발음하는 것을 듣는데, 억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평소에 유창하고 자연스런 영어를 말하도록 부단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 예 〉 See you to⌈mor⌋row. (231형)

Will you be right⌈back? (233형)

What do⌈you⌋think of the⌈ma⌋tter? (232형)

다) 리듬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stress-times language)라 한다. 제1강세와 다음의 제1강세 사이에 있는 음절수에 상관없이 대체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제 1강세가 반복된다. 제1강세와 다음 제1강세 사이에 약강세 음절수가 많으면 빨리 발음을 하고 적으면 천천히 발음하게 된다. 그래서 음절 박자

언어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에게는 등시 간격 리듬으로 빨리 흘러가는 영어 발음을 감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음악의 박자와 리듬에 맞추어 영어를 발음해 보거나 노래나 시를 통해 리듬을 연습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 문장에서 / / 사이에 있는 말은 음절수에 무관하게 거의 같은 시간 동안 발음된다.

〈 예 〉 I feel / the Olympics / are the true symbol of / world harmony.
They couldn't have / chosen a / better / time for their / holiday.

(3). 음성 변화의 지도

음성의 변화란 어떤 음이 음성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유사한 조음법에 의해서 다른 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특히 음소에 의한 음성 변화라 하고 음의 급격한 변화이므로 느끼기 쉬운 현상이다. 음소에 의한 음성 변화는 주로 동화, 탈락, 첨가, 융합, 음위 전환, 중음 탈락, 약화, 연결, ~ing의 g 생략, 3중자음의 발음,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주어,동사의 생략 등이다. 이러한 음성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을 회피하고 발음하기 쉬운 음으로 변화한다는 '발음용이설' 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어쨌든 위에 든 여러 가지 음성의 변화 현상은 영어 듣기의 중요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의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겠다.

가) 동화 (assimilation)

동화란 어떤 음이 인접한 음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현상으로 노력의 경제성 원칙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동화에는 두 개의 음이 서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순행 동화, 역행 동화, 상호 동화로 나눌 수 있다.

(a) 순행동화 (A→B)
AB 두 음의 연쇄가 있을 때 A가 B에 영향을 주는 동화
〈 예 〉 happens〔hæpmz〕〔n→m 〕, counted 〔kauntid〕→〔kaunid〕
want to 〔wɔnt-tu〕–〔wɔntu〕–〔wɔnə〕

(b) 역행 동화 (A←B)
순행동화의 반대 현상으로 AB 두음이 연쇄되어 있을 때 B가 A에 영향을 주어 뒤의 음을 닮아서 앞의 음이 변하는 경우. 영어는 대부분이 역행 동화이다.
〈 예 〉 give me 〔givmi 〕→ 〔gimmi〕〔 v→m〕
grandma 〔gr nma 〕→ 〔gr mma 〕〔n→m 〕

(c) 상호 동화(A←→B)
AB 두 음이 연쇄되어 있을 때 AB가 서로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영

어의 이중모음은 모두 상호 동화의 예이다.

〈 예 〉 miss you〔mis yu〕→〔miʃu〕〔s→ʃ y→ʃ〕
meet you 〔mit yu〕→〔mit tʃ〕

나) 이화 (dissimilation)

이화란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음이 인접해 있을 때 인접 음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조음상의 편의성을 희생시켜 유사성이 적은 음으로 바뀌는 강화 현상이다. 영어의 〔ər〕에 이어서 〔r〕발음이 나타날 때 〔r〕음의 반복을 피하여 〔ər〕을 〔ə〕로 발음하는 현상을 말한다.

〈 예 〉 library 〔 laibrəiri 〕→〔laibəri〕〔r—r〕.
camera 〔kæmər 〕→〔k mr 〕〔ə—ə 〕

다). 탈락 (delision)

탈락이란 특정한 음성 환경에서 분절음이 소실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특정한 환경이란 빠른 말투, 부주의하고 일상적인 말투, 약세 모음을 발음할 때를 말한다. 탈락은 뜻의 혼동을 가져오지 않는 한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빠르게 이어지는 대화를 알아듣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듣는 훈련과 아울러 발음 연습도 겸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제 모음의 탈락과 자음의 탈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탈락 현상을 지도할 때는 탈락되지 않은 발음을 지도한 다음 탈락된 빠른 발음을 지도하여 두 가지 모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a) 모음의 탈락

탈락하는 모음은 항상 약세 모음이다. 약화 모음 〔ə〕와〔i〕뒤에 유음,마찰음,강세모음이 뒤따를 때, 강세 모음이 자음과 〔l〕사이에 위치할 때, er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할 때 등이다.

〈 예 〉 police〔plis〕, terrific〔trifik〕, believe〔bliv〕, photography〔ftagrə fi〕
suppose 〔spouz〕, camel 〔kæml〕, over and above 〔ouvrənəbʌv〕

(b) 자음의 탈락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조음점이 같은 음이 나란히 놓여 그 중 어느 하나가 탈락하는 경우와 어중이나 어말에 중복 자음군이 생겨 이들 발음을 쉽게 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① 중복 자음 탈락
〈 예 〉 last time 〔læstaim〕,bus stop 〔bʌ stap〕
② 치경 비음 〔n〕뒤에 치경 파열음 〔t,d〕탈락
〈 예 〉 blind man 〔blain mæn〕, grandson 〔grænsʌn〕
③ 단어가 〔d〕,〔t〕로 끝나고 다음 단어도 〔d〕,〔t〕로 끝날 때
〈 예 〉 sit down 〔sidaun〕, could do 〔kudu〕

④〔s〕뒤의 〔t〕 탈락 〔모두 치경음〕
〈 예 〉 must run 〔mʌs run〕, next day 〔nɛks dei〕
⑤〔ŋ〕뒤나 〔g〕 앞의 〔k〕는 생략
〈 예 〉 anxious 〔æŋʃəs〕, blackguard 〔blæ gard〕
⑥ 자음 군을 간단히
〈 예 〉 finish now 〔finiʃnau〕, kept quiet〔kɛp kwaiət〕
⑦ 약 강세의 of, have, a, has, as, is, does, was 등
〈 예 〉 lot of 〔latʌv〕→〔larə〕,plenty of 〔pleni〕, sort of〔sərə〕
⑧ 기능어 첫머리 〔h,w, ð〕의 탈락
〈 예 〉 killed them 〔kil • m〕→〔kil • m〕, lose him〔luz him〕→〔luam〕

라). 약화 (reduction)
해당 음절에 강세를 받지 않을 때 일부 발음이 약화되거나 탈락되는 현상이다.

(a) 모음 약화
강세를 받지 않는 모든 모음은 약화된다.
〈 예 〉 admit, emit, omit,〔əmit〕, an, in, and, than 〔ən〕
(b) 자음 약화
① 〔t〕,〔d〕다음에 성절의 〔n〕,〔l〕이 올 때 성문 파열음 〔ʔ〕에 의해 대치된다.
〈 예 〉 certain 〔sərʔn〕, mountain 〔maunʔn〕, bottle 〔baʔl〕
② 〔t〕나 〔d〕가 모음 사이나 모음과 성절의 〔l〕사이에 오면 더욱 약화되어 혀끝으로 치경을 빠르게 한번 쳐서 내는 설탄음(flap)이 된다. 사람의 "띵" 처럼 발음한다.
〈 예 〉 go to 〔gou tu〕→〔gouru〕, getting 〔getiŋ〕→〔geriŋ〕
should have been 〔ʃurəin〕, debate over 〔diveirouvər〕
③ ~ing〔ŋ〕은 〔n〕으로 약화된다.
〈 예 〉 I'm going to do.〔aim gɔnədu〕, getting there 〔gerin nɛər〕
④ 어두에 나오는 무강세 be의 약화
〈 예 〉 because〔bikɔ:z〕→〔kɔ:z〕. believe 〔bili:v〕→〔bəli:v〕

마). 연결 (liaison)
실제 빠른 발음에서 모음 또는 자음이 서로 이동하여 말의 흐름을 부드럽고 용이하게 해주는 현상이다.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여 개개의 단어로 존재할 때에 음이 변질되어 들리므로 정확한 음의 인지를 위해서는 분석적인 지도와 연습이 필요하다.
〈 예 〉 Please, come here.는〔pli:z kʌmiər〕로, far away〔farəwei〕로 들린다.

바). 첨가

첨가란 본래 있지 않던 음이 삽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잉여의 파열음, 삽입의 r, 연결의 r, 전이음 〔y〕,〔w〕의 첨가 등이다. 첨가는 발음을 부드럽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현상으로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해져야 한다.

(a) 잉여의 파열음 첨가
m, n, ŋ 과 자음 사이에 p, b, t, d, k, g가 첨가된다.
〈 예 〉 dreamt〔drɛmpt〕, warmth〔wɔrmpθ〕,length 〔lɛŋ kθ〕
(b) 삽입의 r모음과 모음이 인접하여 있을 때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r을 삽입한다.
〈 예 〉 He saw it〔hi sɔ: rit〕, idea of〔aidiərə〕,Is papa in?〔iz papa rin〕
(c) 연결(linking) 의 r
무 r 지역에서 철자 상으로만 갖고 있던 어미 r 이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발음되는 현상이다.
〈 예 〉 take care of〔tɛi kɛərə〕, as a matter of fact 〔æzəm tærəfækt〕

사). 주어 동사의 생략
빠른 속도의 대화 중에서는 명령문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어 또는 동사가 약음화 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 예 〉 (Do you) want to ride ? , I('ll) be right back.

B. 어휘 지도
어휘는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는 물론 듣기에서도 발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어휘가 결핍될 때 듣기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휘는 듣고 무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성과 또한 풍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어휘는 그림, 행위, 실물 등과 함께 단어의 의미가 제시될 때 가장 잘 학습된다. 단어를 문맥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어휘 망을 형성하여 마음속에 잘 고착화된다.

(1). vocabulary networks
주제를 제시하여 관련 어군을 찾는 활동으로 사전 사용을 습관화시킬 수 있다. 사전을 준비시킨다. 중앙에 원을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개의 원을 그려 연결시킨 다음 중앙의 원에 영어로 주제어를 쓰고 외각 원을 두 개의 횡선으로 구분하여 각 하부선 위에 우리말로 단어를 쓰게 한다. 그룹별로 혹은 반 전체가 자유롭게 질문하는 가운데 외각원 안의 상부선 위에 영어로 써 넣게 한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사전에 의존하고 그것도 안되면 선생님에게 질문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각 원안에 단어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

(2). guess the words

문맥으로부터 어휘를 추측하는 연습이다. 대부분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몇 개의 영어 단어가 섞여 있는 텍스트를 읽히고 그 영어 단어의 의미를 문맥으로부터 추측하게 한다. 가능한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있는 학생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찾거나 만든다. 영어로 대치할 단어를 선정하고 영어 단어로 고쳐 쓴 다음 학생들에게 줄 유인물로 만들어 배부한다. 텍스트의 제목을 칠판에 쓰고 그림을 보게 한 다음 그 텍스트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묻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영어나 우리말로 몇 개의 단어를 제시하게 한다. 텍스트는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몇 개의 영어 단어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그 영어 단어의 뜻을 말하게 한다. 상자 속에 모든 번역문을 주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어휘의 추측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 odd words out

일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어군을 정의하여 분류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단어의 집합을 주고 그 중 어느 단어가 그 집합에 적합하지 않은가를 결정하게 한다. 몇 개의 단어 중에서 하나의 이상한 단어가 들어 있는 단어의 집합을 만들어 낸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상한 단어들을 배제한다.

〈 예 〉 thematic : cat, fish, flower, dog
sound : cat, dog, rat, fat
grammatical : jump, think, swim, fast

(4). Adam and Eve

egg and (baccon), cat and (dog), fish and (chips), sun and (moon)·…같은 10개의 짝을 이룬 표현 목록을 준비하여 짝의 첫째 것을 받아쓰게 하고 나머지를 생각하여 써넣도록 한다. 학생들이 답을 비교하게 하고 전체 학생이 정답을 썼는지 점검한다.

(5). tennis game

이 게임은 2인 1조로 또는 그룹별로 이루어지며 tennis game 같이 점수가 기록되지만 공대신 단어를 사용하는 게임이다. A가 B에게 단어를 서브하면, B는 같은 어군의 단어를 되받아 친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어군 대신에 똑같은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나 그 이전 단어의 마지막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어갈 수도 있다.

〈 예 〉 A — rabbit, B — cat
A — dog B — mouse
A — 생각해 내지 못함 점수 : love — 15
A — table B — chair
A — desk 점수: 생각해 내지 못함 15— all

(6). puzzle bag game

paper bag 속에 물건을 준비하고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주되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사고의 범위를 좁혀 간다. 20번의 yes-no question 으로 맞추도록 한다. 분단별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game을 진행할 수 있다.

(7). crossword puzzle

〈 예 〉

		F	E	E	T
		I	N		A
D	A	N	G	E	R
		G	I		T
		E	N		A
C	A	R	E	E	R

각 번호에 해당하는 단어를 쉬운 영어로 설명하거나 동의어 및 반의어를 주거나 무언극 또는 그림으로 설명하여 해답을 찾게 한다.

(8). word chains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를 칠판에 쓴다. 학생들은 양끝의 문자를 포함하도록 교대로 단어를 첨가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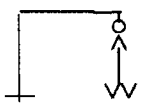
〈 예 〉 KISS ③ TOP ① LAY ② YELLOW ④

(9). hangman game

한 학생이 한 단어를 생각하여 문자가 들어갈 곳마다 dash를 칠판에 표시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문자를 알아 맞춘다. 그 단어에 해당하는 문자를 알아 맞출 때는 해당 위치의 dash에다 써지고, 틀린 문자를 말했을 때는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 간다. 단어를 정확히 맞춘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 다음 단어로 넘어간다.

〈 예 〉 O S E

_ _ _ _ _



(10). sound bingo

각 학생에게 10장의 백지 빙고카드를 준비시킨다. 익히고자 하는 단어를 칠판에 쓴다. 수업 시간에 또는 숙제를 부과하여 학생들이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서 기록하게 한다. 각 학생은 10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빙고카드에 적어 넣는다. 교사나 학생이 닥치는 대로 부르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쓰면서 번호를 매겨 목록을 작성한다. 자신의 카드에 있는 단어를 들을 때에는 그 번호를 카드에 써넣는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카드가 완성될 때 "bingo" 라고 외친다.

(11) .words from words

긴 단어나 짧은 문장을 칠판에 쓴다. 그 단어나 문장에 있는 문자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

〈 예 〉 grandmother→and, red, hot, her…

(12). categorization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개의 단어를 나열한 다음 그것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 지를 한 단어로 답하게 한다.

〈 예 〉 ① hammer, ax, saw : All are tools.
② table, chair, lamp : All are furniture.
③ roses, tulips, daisies : All are flowers.

(13). definition

단어의 뜻을 추측할 수 있게 쉬운 영어 표현으로 설명한다. 이때 예시, 유사어, 반의어 등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 예 〉 transport: take something or somebody from one place to another in a vehicle
winter : the last and coldest season of the year, coming between autumn and spring

(14). supply-the word technique

이것은 단어와 철자를 동시에 익히는 방법으로 적합하다. 단어의 첫 문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dash로 하거나, 단어의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dash로 하거나, 단어의 마지막 문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dash로 하여 그 dash를 채우게 할 수 있다.

〈 예 〉 s_____, g_____n, _____h

(15). " What is it? " technique

새로운 단어를 가르치고자 할 때 쓰인다. 학생의 기존 지식을 동원하여

알아돌을 수 있게 설명한 다음 마지막에 " What is it ?" 라고 묻는 방법이다.

〈 예 〉 A hospital is a place where sick people go. There are doctors, nurses, medical supplies and patients there. Doctors see patients and nurses care for them. What is it ?

C. 구문 지도

듣기 중심의 교수 학습에서도 종래의 문법적인 설명이나 문장 구조에 대한 지도는 가능한 한 삼가거나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겠다. Chomsky의 말을 빌리자면, 모국어 화자는 언어 습득 장치(LAD)에 의한 언어 능력을 갖고 태어나므로 어린 시절에 모국어에 대한 언어 규칙을 가르치지 않고서도 자연히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성인으로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미 화석화된 상태(fossilization)이고, 학문적 목적의 독해 능력도 신장시켜야 하며, 문법의 청해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감안할 때, top-down 식 언어 습득 이론을 적용하여 필수적이고 빈도 높은 문법 및 문장 구조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written grammar drill, 청화식 교수법에 의한 mechanical drill, Paulston and Bruder에 의한 유의적 연습(meaningful drill), 혹은 의사전달 연습(communicative drill)을 적용하되, 청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의적 연습 또는 의사전달 연습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전통적 문법 연습(written grammar drill)

문법 규칙이나 structure를 우리말로 설명하고 예문을 제시하여 충분한 연습을 한 다음 문장을 전환하는 연습이 뒤따르게 된다. 전통적 교수법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으로 일부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독해력 위주의 교수법에는 적절하나 보통의 학생들에게는 지루하고 흥미를 잃게 할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적절한 수업 기술을 발휘하면 효과적일 경우도 있으므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2). 기계적 연습(mechanical drill)

이 방법은 청화식 교수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structure pattern을 기계적 반복적으로 연습시켜 언어에 대한 반응이 자동적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함으로써 실제 언어사용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문법 구조나 규칙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문형이나 유사 문형의 연습을 통하여 문법 구조나 규칙을 귀납적으로 유추하게 되는 것이다.

Paulston(1976:11-27)은 여러 가지 문형연습 유형 중에서 반복(repetition), 대치(substitution) 확장(expansion), 완결(completion), 축약(reduction), 변형(transformation), 통합(integration)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데, 이를 간단히 살펴본다.

가). 반복(repetition drill)

교사의 육성이나 테이프를 듣고 따라서 반복하는 것이다.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으로 확장해 가면서 반복하여 암기하도록 함으로서 발화에 대한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문형 연습은 주로 맨 처음 repetition drill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 예 〉It's far. It's a long way from here. It's a long way from here to the park. It's a long way from here to the park without water.

나). 대치(substitution drill)

어휘 및 어형 변화, 시제, 주어와 술어의 관계, 인칭, 수, 비교 구문, 어순 등을 익히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교사가 모범 문장(model sentence)을 반복시켜 암기하게 한 후 cue를 제공하면 학생은 cue를 대치해 넣어 문장을 완성한다. 단일 대치(single slot substitution), 복수 대치(multiple slot substitution), 전위 대치(moving slot substitution), 상관 대치(correlative substitution)등이 있다.

〈 예 〉 Rep: I like to study.
Cue : You
S : You like to study (대명사의 대치)
Cue : play
S : I like to play (동사의 대치)

다). 확장 (expansion)

모범 문장에 cue가 첨가되어 문장이 확장되어 간다.

〈 예 〉 Model : The girl is beautiful.
Cue : little
S : The little girl is beautiful.
Cue : pretty
S : The pretty little girl is beautiful.
Cue : on the bench
S : The pretty little girl on the bench is beautiful.

라). 축약 (reduction)

확장의 반대 현상이나 명사가 대명사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예 〉 Model : The man is rich.
T : He is rich.
Cue : The book is thick.
S : It is thick.

마). 변형(transformation)

부정문, 의문문, 시제, 화법, 태, 상등을 변화시키는 연습이다.

〈 예 〉 Model : He is happy.
T: Is he happy?
Cue : H e is a teacher.

S : Is he a teacher ?

바). 완결 (completion)

문장에서 빠진 어, 구, 절 등을 보충해 넣는 연습으로 학생 스스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 예 〉 Model : I went downtown.
T : I went downtown yesterday.
Cue : I'm going to go to America.
S : I'm going to go to America next year.

사). 통합 (integration)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연습으로 구, 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등에 의한 결합이다.

〈 예 〉 Model : He danced. He was singing.
T : He danced singing.
Cue : He opened a newspaper. He was listening to music.
S : He read a newspaper listening.

(3). 유의적 연습(meaningful drill)

기계적 연습과 유의적 연습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작용한다. 유의적 연습이 기계적 연습보다 어렵고 반응속도에서 느리고 머뭇거리게 된다. 유의적 연습은 또한 형태(form) 보다는 의미(meaning)에, 구조적으로 맞는 것(correct)보다는 내용이 올바른 것(true)에 중점을 둔다.

〈 예 〉 상황에 맞는 답을 요하는 질문의 경우

Does Jim speak Spanish ? S : Yes.
Is he speaking Spanish now ? S : No.

상관 대치 연습을 적용한 경우

Rep : Tom studies everyday.
T : (now) S : Tom is studying now.
(tomorrow) Tom is going to study tomorrow.
(everyday) Tom studies everyday.

학급 환경이나 학생들 자신에 관한 것을 기초로 한 경우

T : What is Min-ho doing? S : He is reading a book.
He is looking at the blackboard.
He is talking with his friend.

상대의 실제 사정을 묻는 경우

T : What did you do last night ? S : I watched TV.
T : How long did you watch TV ? S : for two hours

(4). 의사 전달 연습(communicative drill)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는 연습으로 문법적으로 맞고 내용이 타당해야한다.

〈 예 〉 T : Describe the weather in your country.
S : It's beautiful.
T : What kind of things do you want to do by yourself ?
S1 : I want to go on a trip by myself.
S2 : I want to walk in the rain by myself.

D. 종합적 이해를 위한 듣기 활동

지금까지 음의 식별, 어휘의 습득, 구문의 습득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듣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들 요소들이 개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청취 이해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요즈음 여러 가지 듣기에 관한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듣기 활동들을 범주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신반응법(Total Physical Response)

가) Listen and do activities

집중적 듣기 활동으로 직관적 듣기 기능을 발달시킨다. 교사는 구문과 어휘를 포함한 주제와 언어적 관점과 관련한 명령의 목록을 작성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으로 옮긴다.

〈 예 〉 commands : Pick up your pencil.
Look at the point.
Feel it with your thumb. It's dull.
Want to borrow my pencil sharpner ?
Stick the pencil in the hole.
Sharpen the pencil.

나) Simon says

학생들에게 지시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한다. 즉 Simon says " Stand up"라고 말하면 일어서는 동작을 하고, 그냥 Stand up 이라고 말하면 동작을 하지 않는다.

(2) 받아쓰기 (Dictation)

가) 부분 받아쓰기

음, 단어, 구, 문장의 일부분 등을 받아쓰게 한다. 음은 minimal pairs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청해상 장애가 되는 음들을 받아쓰게 하고, 단어, 구는 본문 학습시 익힌 단어, 숙어 등을 받아쓰게 하여 청취력 신장 및 복습의 효과를 거둔다. 문장 받아쓰기의 경우는 규칙적으로 5~10번째 문장을 빈칸으로 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내용어 또는 기능어를 빈칸으로 하되, 문장의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과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둔다.

〈 예 〉 다음 대화를 들으면서 밑줄에 해당하는 말을 써넣으시오.
Phil: Hey, Bob. Do you want to go out for a hamburger?

Bob: Sure. There's no gymnastics practice today, anyway. The baseball team is using the gym.
Tom: I'm hungry. I need a snack.
Phil: I'm starving. Where shall we go?
Bob: I don't know. Where do you want to go?
Phil: Well, I'm tired of standing here. We'll decide in the car.

나) 전체 받아쓰기

문장 전체를 받아쓰게 하는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너무 어려우면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으므로 글감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동기 유발을 위해서 되도록 이미 다룬 내용을 선정하여 문장의 길이도 너무 길지 않게 고려한다. 차츰 문장 내용과 길이도 그 정도를 높여 생소한 문장을 글감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예 〉 다음 대화를 들으면서 받아쓰시오.

Mrs. Stevenson: Jim, this traffic is terrible
Mr. Stevenson: Yeah, but we're still moving. Does anyone see the windmill yet ?
Mrs. Stevenson: I'm still looking for it.

(3). 역할극 (Role play)

가) 유도된 역할극 (guided role play)

학생들로 하여금 기능 별 flow chart에 의 대화를 즉흥적으로 꾸미게 한다. 학생들에게 혀가 달라붙어 있다는 감정을 극복하게 한다. 언어의 구사는 선택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한다. 기능 별 flow chart를 설계하여 반 전체를 위해 준비한다. 학급을 조별 또는 그룹으로 나눈 다음 flow chart를 분배하여 주고 누가 A 또는 B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대화를 꾸민다.

〈 예 〉 At the Railway Station

student A : traveller — student B : railway clerk
ask for ticket to London → ↙ check return or single
return → ↙ check 1st or 2nd class
2nd class → ↙ give ticket
explain ticket is single → ↙ apologize, give correct ticket

나) 이야기 역할극 (story role play)

학생들이 읽은 이야기 중에 인물들을 역할극으로 꾸미는 것이다. 먼저 이야기를 결정하게 되는 데, 단편소설, 요정 이야기, 장편소설에서 발췌한 것, 또는 단순히 교과서의 이야기든지 결정이 되면 학급에 분배할 수 있도록 복사한다. 역할극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토의하게 한 후, 이야기 속의 인물의 숫자에 따라서 학급을 조별 또는 소집단별로 나눈다.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분배하고 원하는 인물을 선택하게 한다. 몇 분간 그 인물에 대해 연구한 후에 유인물을 덮고 장면을 즉흥적으로 꾸민다.

(4) 노래를 통한 지도

Tim Murphey(1993:6-7)는 언어 학습에서 음악과 노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① 노래가 인간의 언어 발달보다 앞섰다. ② 노래가 어린이의 언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노래는 인간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④ 노래가 장·단기 기억력을 강화시켜 준다. ⑤ 노래부르는 활동은 Piaget의 자기중심적 언어, Chomsky의 언어 습득 장치와 관련이 있다. ⑥ 노래는 반복되는 간단한 대화체 언어로 되어 있어 정서적이고 동기 유발 효과가 크다. ⑦ 노래는 긴장을 풀어 주고 다양성과 흥미를 준다고 언급한다. 한편 Lozanov(1978)는 그의 suggestopedia에서 대화를 읽는 동안에 배경음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데, 이는 음악이 두뇌의 우반구 활동을 강화시켜 주고 방어 기제를 덜어 주어 언어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고 한다(Richards & Rodgers,1988:145-146).

〈 예 〉 Sing
Sing, sing a song
Sing out loud
Sing out strong
Sing of good things, not bad
Sing of happy, not sad
.....

가) 노래 가사 완성하기

청해력, 읽기, 추측력, 작문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학급의 언어 수준에 적합한 노래를 선택하여 몇 군데 단어나 구를 생략하여 학생들이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으로 한다. 특별한 단어군(동사, 전치사, 형용사)을 빈칸으로 할 수도 있다. 빈칸으로 한 노래 가사를 분배하여 조별 작업을 시킨다.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빈칸에 채워 넣을 말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함께 읽는다. 모르는 단어는 설명을 가한다. 그 다음 노래를 듣고 빠진 단어를 채워 넣게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에 답하게 하여 불일치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을 다시 듣게 한다. 저급한 수준의 경우는 유인물 밑에 빠진 단어의 목록을 기록하여 선택하게 한다. 빠진 단어의 문자 수에 맞추어 대쉬를 설정해 주거나 첫 문자를 밝혀 줄 수도 있고 숙어의 경우는 단어의 숫자를 밝힐 수 있다.

나) 가사 바꾸기

어휘 및 문법적인 범주를 연습하고 의미 변화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래 가사를 유인물로 준비하여 분배한다. 모든 동사의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고, 대명사의 인칭을 바꾸고, 형용사와 동사를 바꾸어 반대 의미를 갖게 하고,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게 한다. 조별 활동을 통하여 서로 바꾸었을 때 의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토의한다.

다) 노래 부르기

이 활동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고 발음과 억양 연습도 하고 즐거움도 느

낀다.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노래를 선택하여 가사를 전체 학생들에게 분배한 후 카세트를 틀어 준다. 육성으로 혹은 테이프를 따라서 부르게 한다. 간간히 테이프를 멈추고 멜로디를 배워서 반복하게 한다. 노래를 익힌 후에는 학급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노래의 부분을 할당하여 교대로 부르게 하거나 노래가 끝날 때 코러스를 넣게 하거나 혼성으로 한쪽은 노래를 한쪽은 합창으로 부르게 할 수 있다.

(5). 선택적 듣기 (selective listening)

Nida(1965:108)에 의하면, 선택적 듣기는 한번에 특정한 자질만을 골라서 듣는 것이다. 선택적 듣기의 일반 원칙으로 ① 언어를 처음 듣는 순간부터 선택적 듣기가 시작되며 ② 한번에 하나의 자질만 들어야 하고 ③ 언어의 모든 자질들을 연속적으로 들어야 하며 ④ 그 자질들을 듣는 순서가 조직적이어야 하고 ⑤ 이해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자질들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한다. 음성자질, 어휘, 문법 순으로 습득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음성 자질로서, 처음부터 억양에 집중하면 단어의 뜻을 모르고서도 주요 억양의 패턴에 익숙해 질 것이다. 그 다음 뚜렷이 구별되는 자음에 집중해서 듣는다. 모음은 덜 대조적이고 구별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구별되는 자음을 습득한 후에 모음을 익힌다. 뚜렷이 구별되는 극단적인 모음부터 차츰 애매한 모음으로 익혀 가서 유음(allophone)까지 정확히 익힐 수 있게 된다. 둘째, 어휘로서, 어휘는 구조적 문맥 속에서 의미가 있고 개개의 단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구조에 주의하지 않고 식별되는 단어만을 듣게 한다. 단어를 기억하고 문맥 속에서 단어를 듣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의미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자주 반복되는 음의 연속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억 속에 저장이 되면 회생이 용이해 진다. 이미 습득한 단어나 어구를 구어에서 알아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단어나 구의 음향 형태를 배워 반복함으로서 음향적 인상을 기억 속에 박히게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녹음된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문법으로, 아무리 잘된 문법도 완전할 수는 없고 말할 때도 이 불완전한 문법에만 의존할 수 없다.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음향적으로 인식하므로서 적절히 언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인상은 다년간 계속 들음으로서 형성되고 언어 구조의 특정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음으로서 증강된다. 더 큰 언어의 구조적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및 절의 순서를 식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또한 부정문, 명령문, 평서문, 의문문 같은 특수한 구문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광범한 언어의 패턴뿐만 아니라 지배(government), 교차 지시어(cross-reference), 일치, 성, 수, 격,인칭, 법 등도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끝으로 담화 중에 사용하게 될 문장 구조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예 〉 다음 대화에서 특별히 접속사 that에 주의하여 듣는다.

Mrs. McBride: Cathy, Linda told me that you have the state park book.
Cathy: Yes, I've got it right here.
Mr. McBride: Someone heard that there are nature trails in this park. Can you look and see?
Cathy: Yes, the book says that there are two nature trails. The map says that the second trail begins near here.
Girl: Mrs. McBride, do you think that we could go hiking on that trail this afternoon?
Mrs. McBride: Yes, I think we can.

(6). 그림을 통한 듣기 활동

가) 그림 그리기(picture drawing)

처음에는 간단한 그림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그림으로 발전해 가면서 그리게 한다. 예술성보다는 요구한 바 대로 그리느냐가 중요하므로 예술적인 그림보다 모형도나 배치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짝을 지어 한 쪽은 설명하게 하고, 한쪽은 그리게 한다. 역할을 바꾸어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때 봉선화(stick figure)를 그리는 재능이 필요하다.

〈 예 〉 다음 지시에 따라 그림을 그린다.

First draw a regular square 5 cms long .
Second draw a circle 5 cms across inside it.
next draw diagonal lines from corner to corner
then put a vertical line at the center of the circle
and then draw a triangle 3 cms across cms apart from the left.
and finally draw parallel lines 4 cms long and wide, 2 cms apart from the right and the bottom

나) 그림 완성하기 (completing pictures)

난이도 수준이 낮은 학습의 초기에 특히 유용하다.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그림의 기본적 윤곽을 보면서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항목을 그려 넣는다. 그리고 색칠하는 것이 예술적인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했는지를 보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듣기의 연속성이 깨어지지 않도록 윤곽만 그리게 해야 한다.

다) 그림을 순서대로 배열하기

많은 번호를 매긴 그림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설명을 듣고 정확한 순서로 그림들을 배열하게 한다. 너무 많은 그림이나, 듣지 않고서도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그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라)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림 선택하기(storyline picture sets)

몇 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몇 조의 그림을 주고 이야기를 육성이나 테이프 등으로 들려 준 다음 그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한다. 듣

는 동안 그림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듣기를 중단하게 되므로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림의 차이가 나타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기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의 내용에 대해 짝을 이루어 토의하게 한다. 질의응답이나 집단 토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바) 그림에 해당 항목을 표시하기

화자의 말을 듣고 사람과 물건을 인식하고 언급되는 항목에 표시하고 잘못된 것에 표시하고 세부 사항을 체크하고 선택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쓰는 동안에 듣기 활동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 설명에 따라 그림 짝 맞추기(matching pictures)

보통 사람, 장면의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설명이나 대화를 듣고 해당하는 그림을 선택하는 활동이다. 그림의 유사성과 차이점 혹은 설명이나 대화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7). 목록을 이용한 듣기 활동

가) 듣기 전에 항목이나 사고의 목록을 보기

듣기를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단어, 구, 진술을 미리 순서대로 목록으로 제시하면 듣기 활동이 용이해 진다.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목록을 무작위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없는 단어나 구를 포함시켜 답을 고르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 예 〉 다음을 듣기 전에 어휘나 관련 항목을 숙지한다.

in order to, on time, driver training, necessary, driver's license
It's 3:00 and Phil is running in order to be on time for driver training class. Almost all students take driver training in high school. It's necessary in order to get a driver's license, and you need a driver's license to driver a car.

나) 목록을 이용한 듣기 활동

쇼핑이나 방문 장소를 목록으로 작성하는 활동이 보통인데. 쓸 내용이 너무 많거나 갑작스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들으면서 동시에 써야 하므로 철자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듣기의 많은 부분을 놓치기 쉽다. 따라서 교사나 듣기 교재가 제공하는 목록을 이용해서 해당 항목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목록은 사물, 행위, 나라, 사고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질문지, 양식, 혹은 챠-트의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

〈 예 〉 다음 쇼핑 리스트를 완성한다.

1	dozen of	eggs
3	loaves of	bread
2	heads of	lettus
10	lb. of	potatoes
5	lb. of	stake

다) 목록 확대하기

듣는 동안 목록에 체크하거나 목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듣기가 끝났을 때 목록을 첨가시키도록 하는 활동이다.

예) 다음 크리스마스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하고 더 첨가할 목록을 써넣는다.

Eat a special meal
Go to church.
Break wafers.
Sing Christmas carols.
Open Christmas presents.
Wish each other good luck.
.....
.....

(8). 완성하기 (completion)

가) 격자 완성하기

교사가 격자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그려 넣게 한 다음 듣는 동안에 해당하는 답을 격자 속에 넣게 한다. 정보가 너무 많거나 써넣기가 어려운 경우는 미리 답을 제공하거나 격자를 채워 넣기에 적합한 순서로 듣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예 〉 다음은 구두 가게에서 손님과 가게 주인과의 대화를 듣고 격자를 채워 넣는다.

	SIZE	WIDTH	COLOR	PRICE
MRS. BURTON	8	medium	gray	$29
MR. REDFORD	10 1/2	medium	gray	$32
MR. WAYNE	12	wide	brown	$62
MISS HEPBURN	8 1/2	marrow	beige	$19
LINDA	7	narrow	brown	$22

나) 양식이나 챠-트 완성하기

듣는 동안에 정보를 얻어서 여러 가지 완성하는 연습을 하는 활동이다. 미리 틀을 만들어서 응답하기가 쉬우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한다. 듣기 활동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예 〉 테이프를 듣고 다음 도서 대출 양식을 작성한다.

CALL NUMBER	(please print) Author:	Date published:
	Title:	
M/ H96	Name:	
	Address:	
	Phone:	
	Student ID. No.	
DATE DUE	STUDENT □ FACULTY □ STAFF □ VISITOR □	
	Signature	

(9). 예측하기(predicting)

가) 청취 전 예측하기

청취 전에 예측하는 것은 좀더 일반적인 것으로 학생들에게 화자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듣기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될 것인지 제안하도록 한다. 이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날 듯한 행동에 관심이 더 많은 상급 혹은 성인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 예 〉 미리 배경 설명을 해 주고 화자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예측하게한다.

Mary and Mr. Pearson

Background information: Mary has worked for the sales department of a furniture company for over ten years. Recently she applied for the position of head of the sales department at the company. Mr. Pearson, the head of the company , chose a person named Jack Bridgeman for the job instead of Mary. Mary thinks she should get the promotion instead. She goes to talk to Mr. Pearson. She wants Mr. Pearson to change his decision.

What do you think Mr. Pearson will say?

a. If you think you can handle the job, I'll change my decision and give the job to you.

b. We think we made the best decision. We're not going to change it.

c. Please talk to Jack and decide together who should get the new job.

나) 청취 중 예측하기

이 활동은 주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까를 예측하는 활동이다. 딱 들어맞는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화자가 실제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잘 들어맞는 대안이 되는 표현을 배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녹음기를 사용할 때 말이 끝나기 직전에 정지 버튼으로 정지시켜 학생들에게 예측하여 완성하게 한다. 또는 이야기하는 도중이나 듣기 자료를 읽으면서 가끔 멈춰서 학생들이 공백을 메우게 할 수도 있다. 특히 리듬과 운이 단서가 되는 노래나 시를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10) 진위형 (true or false)

이는 청해와 독해에 이용되는 활동이다. 듣기 자료를 듣고 그 내용과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alse를 선택하는 문제로서 본문의 사실에 기초해서 답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게 하고 답이 너무나 명백한 문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11) 선다형 (multiple choice question)

청취 중에 선다형 문제를 제시할 때는 휴지를 두어 녹음하거나 테이프를 멈추어서 학생들이 선택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들으면서 동시에 읽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듣기 전에 문제를 읽어보게 할 필요가 있다.

(12) 특정 정보 찾기

뉴-스, 일기예보, 토론 같은 청취 활동을 통해서 특정 정보를 찾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한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듣도록 할 때 좀더 동기부여가 된다. 특정 항목은 귀로 기울여 듣고 골라내게 하고 나머지는 지나치게 할 필요가 있다.

〈 예 〉 듣기 전에 먼저 파악해야 할 특정 정보를 염두에 두고서, 다음 운전 교습 수업에 관한 내용을 들은 후에 질문에 답한다.

Q) 1. Why is Phil running?
2. Why do almost all students take driver training?
3. Why do you need a driver's license?

It's 3:00 and Phil is running in order to be on time for driver training class. Almost all students take driver training in high school It's necessary in order to get a driver's license, and you need a driver's license to drive a car.

(13) 요약하기 (summarizing)

청취 활동 중에 노-트해 두었다가 혹은 기억력에 의존해서 요약할 수 있다. 기억에 의존할 때는 이야기를 듣기 자료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야기의 순서나 흥미도가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들은 내용을 중요한 요점만 간파하여 축약하여 노-트하거나 기억하는 활동이다. 주요 요

소와 부차적인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에서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정보의 질과 양을 차츰 늘려 가도록 해야 한다.

(14)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 활동

듣기 자료에서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우면 설득하고 주장하고 항변하는 활동을 더 해야 한다. 그러나 주 목적이 듣기 활동에 있으므로 좀더 간단하고 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취 중 혹은 청취 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15) 화자간의 관계 인식

청취 중 혹은 청취 후에 듣기 자료의 어떤 특징들이 화자간의 관계를 명백히 해 주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때로는 어휘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다른 경우는 특징들이 좀 더 미묘하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의함으로써 특정한 사회에서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영어가 자신의 언어와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을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자료도 쓸 수 있지만 현실적인 자료가 훨씬 좋다.

〈 예 〉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한다.

1. Who are they?
2. Where does this conversation take place?

A: Request permission to enter.
B: Come in. Come in. Could I have your report please?
A: A routine mission. Nothing to write home about. We made a standard 30,000 light year visit to a neighboring galaxy and brought back life samples for analysis.
B: Hmm. What was the place like?
A: Oh, a nice place. Nice colors, greens and blues. Some interesting features.
B: Any system of interaction?

(16) 화자의 분위기, 태도, 행위 알기

이 활동은 외연적 의미보다 발화의 해석에 의존한다. 언어 구사력과 듣기에 자신이 생김에 따라 청취 후 토의를 통해서 어의 속에 숨겨진 의미를 지각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인 자료가 가장 좋다. 자유 토론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저급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사용하거나 챠-트를 이용해서 빈곳을 채우게 할 수도 있다.

(17) 명칭 붙이기(labelling)

청취 전 활동이나 청취 중 활동을 하는 중에 그림이나 도표의 명칭을

붙이는 활동이다. 듣기 전에 모든 명칭을 다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답을 맞춰 보고 피드백에서 오는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명칭을 붙이기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면 수업 전에 미리 채워 넣을 수도 있다.

(18) 유모어,조크, 만화 등을 통한 듣기 훈련

유모어, 조크, 만화 등은 우선 재미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외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 학습자가 수용할 수 있는 글감을 선택하여 교사의 육성이나 원어민의 녹음테이프를 들려 준 다음 발음, 새로운 어휘 및 표현 등을 익히게 한 후 질의응답, 의사 발표, 토의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19) 영상 매체 및 뉴-스 매체를 통한 훈련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뉴-스, 일기예보, 광고, 게임프로 등을 비디오에 담아 들려주어 실제 외국인들의 대화 중에 빠르게 흘러가는 말소리를 감지하고 식별하고 의미 파악을 시도해 봄으로서 음의 숙지는 물론 성취동기도 부여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 및 상표에 쓰여진 영문도 좋은 듣기 자료가 된다.

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해란 말소리에 기초해서 언어적 지식, 비언어적 지식,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 요소가 작용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겠다. 아울러 청해는 독해와는 달리 여러 가지 제약과 장애가 따른 다는 사실도 주장된 바 있다. 한편 청해는 독립된 기능이 아니라 여타의 언어 기능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해를 지도할 때 타 기능은 소홀히 한 채 청해만을 지도하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청해를 통하여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독해 중심의 학문적 목적도 동시에 달성하고 실제 교실 수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학습 지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음의 식별을 위한 지도로서, 청해의 장애 요인이 되는 분절음소, 초분절음소 및 변음 현상을 조직적 집중적으로 지도해야겠다.

둘째, 어휘 지도로서, 어휘의 결핍은 듣기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므로 무의식적으로 인지될 때까지 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한 단어 학습 법을 제안한다.

셋째, 구문 지도로, 문법의 청해에 대한 보완적 기능과 학문적 목적의 독해 기능도 함께 고려할 때 구문 지도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가 외국어인 점을 감안하여 top-down식 언어 습득 이론을 적용하되 필수적이고 빈도 높은 문형을 추출하여 전통적 연습, 기계적 연습, 유의적 연습, 의사 소통 연습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전반적 이해를 위한 듣기 활동으로, 위의 각 요소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진 후에는 발화의 목적에 따라 의도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 학자들이나 관련 문헌이 밝힌바 와 같이 전신방응법, 받아쓰기, 역할극, 노래를 통한 지도, 선택적 듣기, 그림을 통한 듣기 활동, 목록을 이용한 듣기 활동, 완성하기, 예측하기, 진위형, 선다형, 특정 정보 찾기, 요약하기,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 화자간의 관계 인식, 화자 의 분위기, 태도, 행위 알기, 명칭 붙이기, 유모어, 조크, 만화 등을 통한 듣기 훈련, 영상 매체 및 뉴스 매체를 통한 듣기 훈련 등을 효과적인 청해력 향상 전략으로 제안한다.

끝으로 청해 학습은 이상의 제안 이외에도 정의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며, 교실 수업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타 기능 즉 말하기, 읽기, 쓰기와 독립된 학습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억. (1987). 「미국 영어 발음 연구」. 한남대학교 외국어 교육원.

_____. (1989). 영어 Listening Comprehension 상의 장애 요인.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19집.

김용경. (1987). 영어 청취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한곤. (1985). 「영어 음성학」. 한국방송통신대학.

문정일. (1991). 영어 청취 이해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박아청. (1993). 「현대 교육심리학」. 학문사.

박정자. (1984). 영어 청취 이해력 향상을 위한 연구. 동의대학교 논문집 제9집.

배두본. (1991). 영어 교수 이론. 「영어 교육론」. 213-257. 서울:한신문화사.

서초순. (1988). 영어 청취 이해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8집.

신용진. (1986). 「영어 교육공학 Ⅰ, Ⅱ」. 예지각.

양동휘. (1979). 「영어 음성학」. 서울:범한서적주식회사.

원성옥. (1988). 「미국 영어 음성학」. 학문사.

원성옥, 김명호. (1983). 듣기 지도. 「영어 교수 이론과 실제」, 93-129.

이계순. (1985). 「영어 교수법」. 20-199. 한국방송통신대학.

이응한. (1993). 고등학생의 영어 청취력 향상 지도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준순. (1988). 쓰기 지도를 통한 의사 소통 능력 배양.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전상범. (1990). 「영어 음성학」. 을유문화사.
정대운. (1993). 「현대 교육심리학」. 동문사.
정동빈. (1987). 외국어 습득과 학습 모형. 「영어 교육론」, 32-24.
정운형. (1993). 영어 청취력 지도 내용.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차경환. (1991). 영어 듣기 지도. 「영어 교육론」, 45-69.
차경환, 이경민. (1993). Task-based 영어 청취력 교재 분석을 통한 청취력 문항 연구. 「영어 교육」45:13-42.
최 성. (1992). 영어 청취력 증진을 위한 교수법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Anderson, A.&T. Lynch. (1991). *Listening*.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Asher,J. (1969).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3:3-39.
_____ (1977).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The Complete Teacher's Guide Book*. Los Gatos, Calif.: Sky Oaks Productions.
Bowen, J.D.,H.Madson&A. Hilferty. (1985). "Listening," *TESOL Techniques and Procedures*. Mass : Heinle & Heinle Publishers: 73-99.
Brown, H.D. (1987). " Personality Factors, "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Arts in Childhood Educatio* 2nd ed. Chicago: Rand M.cNally& Company.
Bush, W.J.&M.T.Giles. (1969). Aids to *Psycholinguistic Teaching*.
Call, M.E. (1985). "Auditory Short-Term Memory,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he Input Hypothesis," *TESOL Quarterly* 19(3): 765-778.
Chastain,K. (1976). *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 Chicago:Rand Mcdo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Doff, A.&C.Becket. (1993). *Cambridge Skills for Fluency*, 3rd ed.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41.
Grundy, P. (1994). *Beginn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dfield, J. (1994). *Classroom Dynamics*, 3rd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Kreshen, S.D.&T.D. Terrell.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California: Alemany Press.
Ladousse, G.P. (1994). *Role Play*, 8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ittlewood, W. (1983)." Listening Activities,"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rley, J. (1991). "Listening Comprehension in Second/Foreign Language Instructio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Ed. Marianne Cele-Murcia. Mass: Heinle & Heinle Publishers:81-106.

Murphey, T. (1993). *Music & Song*, 2nd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Nida, E.A. (1965). "Selective Listening,"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 Book of Readings*. Ed. Harold B. Alle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Paulston, C.B. & M.N. Bruder. (1976). "Grammar,"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ss: Winthrop Publishers, Inc.

Peterson, P.W. (1991). " A Synthesis of Methods for Interactive Listening,"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Ed. Marianne Cele-Murcia. Mass: Heinle & Heinle Publishers:106-122.

Phillips, S. (1994). *Young Learners*, 2nd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Porter, D. & J. Roberts. (1987). "Authentic Listening Activities," *Methodology in TESOL*. Ed. Michael H. Long : Jack C. Richards : 177-187.

Postovsky, V.A. (1974). "The Effects of Delay in Oral Practice at the Beginning of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58.

Richards, J.C. (1987). "Listening Comprehension : Approach, Design, Procedure, "*Methodology in TESOL*. New York :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 161-176.

Richards, J.C. & T.S. Rogers. (1988). " Total Physical Response, "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4th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vers, W. M. (1968). " Listening Comprehension, "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_____ (1981). " Teaching Sounds, "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Romijn, E. & C. Seely. (1979). *Live Action English*. California : Alemany Press.

Snow, B.G.& K. Perkins. (1979). " The Teaching of Listening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 *TESOL*

Quarterly 13(1) : 51-56.

Taylor, H. M., J. M. V. Bolt, J. Warren & D. J. Helbig. (1980). *Michigan Action English*, 2nd ed. Michigan University Press.

Tidyman, W.F., C. W. Smith & M. Butterfield. (1969). " Speaking and Listening, " *Teaching the Language Arts*, 3rd e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Underwood, M. (1993). *Teaching Listening*. London and New York : Longman.